



제목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국가와 기독교 이해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 45권)
발행일	2014. 11.
저자	주승민
출판도시	부천
페이지수	312-350
ISBN 또는 ISSN	1738-0138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정책을 통해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이다.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권력과의 유대를 통해 세계적 종교로 올라섰다고 주장한다(니버, 부르크 하르트 등). 반면에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레코 로마세계에서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과 대중적 설득력을 얻으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로마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스타크 등). 저자는 이러한 상반된 두 주장의 어느 한쪽을 따르기보다는,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가 쌍방 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관점은 콘스탄티누스가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당시 로마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콘스탄티누스가 아니어도 기독교 우호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라투렛)에 기초한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논지를 논증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누스의 황기독교 정책들과 기독교 공인과정과 콘스탄티노플로의 천도와 공의회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한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에서 종교는 국가가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영역의 호불호의 문제이며 개인의 덕성을 공론의 장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기독교가 로마의 추축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우호적 태도와 정책 덕분이었다고 한다. 또한 저자가 보기에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은 로마의 안전과 평화와 일치를 지향하는 콘스탄티누스의 목표와 개인적 경건과 교회의 역할이 만 들어낸 결과라고 한다. 이후로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로의 천도를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교회들을 세우고, 기독교의 일치를 위한 정통신앙을 확립하려고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로마사회에서 콘스탄티누스의 행적이 갖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가 각자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자신의 논지를 입증한다.